

아쉬운 한해를 보내며...



발행인 | 이상호

자 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항상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원단의 새로운 각오와 자신과의 약속을 회상하며 후회와 다짐을 반복하게 된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유기폭등과 자연재해, 테러공포,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투기, 국론분열, 김치소동, 정치부재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만 안겨주는 한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환경기술인의 한해는 어떠했을까?

우리의 숙원 사업이었던 '환경기술인'의 법적 명칭이 개정되어 기술인의 자긍심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의 기술력 향상으로 전문 기술자로 변모하여 더욱더 환경보전에 선도자 역할을 해 왔다.

지난 2월 25일에는 환경관계 단체장과 환경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선포식을 갖고, 매년 10월 10일(오염물질 10% 저감운동과 기술력 10% 향상)을 '환경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 기술인이 실천해야 할 '환경기술인 헌장'도 제정·선포하였다. 국가환경보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환경기술인의 업적을 높이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켜 기술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에는 모든 환경기술인

과 내외 귀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환경보전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환경기술장과 환경부장관상, 연합회장상 등을 수여하고 이를 축하·격려하여 우수 환경기술인에게는 무료 해외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으로 기술인들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

이외에 정부의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발표·전시회를 비롯한 현장 실무 전문기술교육, 외국의 우수방지사설 산업시찰과 해외 전시회 관람, 후학 양성을 위해 환경관련학과 모범졸업생 시상, 각종 전시회 참관, 환경관계법규 및 전문기술서적 발간·배포, 환경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환경관리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환경보전 캠페인, 환경 홍보활동, 지역협의회의 각종 세미나 및 친목도모 행사 등의 왕성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 모든 것이 회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격려의 산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합회에서는 기술인에게 알찬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희망찬 삶이 영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내일의 푸른 환경을 기대한다. ◀